

「Asia in 2050」 IMF 컨퍼런스 참석 결과

-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한국의 모범적인 산업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재정경제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3.6(금) 태국 방콕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Asia in 2050」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산업정책(세션5 : “What Role Should Industrial Policies Play?”) 관련 패널 토론에 참여하였다.

* (주최) IMF·태국 중앙은행 공동 개최, 재정경제부 후원

동 컨퍼런스는 아시아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구조적 전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급 회의로 3.4(수)~3.6(금)간 개최되었으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비롯하여 각국 정책당국자, 학계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세션5는 최근 아시아 및 주요국에서 산업정책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정책의 실제 효과와 한계, 향후 정책 설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최 관리관은 우리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되어 온 경험을 소개하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이라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기존 비교우위를 보유한 산업(“safe-bet”)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moonshot”)을 각각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균형있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safe-bet)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에 노력하는 반면, AI·차세대 에너지 등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moonshot) 분야에는 공공-민간 공동투자,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정책은 민간의 투자·혁신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패널들 또한 최근의 산업정책이 기술경쟁, 공급망 안정 마련, 경제안보 등 복합적인 정책 목표와 결합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간 투자 유인, 산업 생태계 강화, 정부와 시장 간 적절한 역할 분담 등 전략적인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최 관리관은 산업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좋은 지배구조(governance) 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신기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되,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시장 규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집행·평가·환류가 이루어지는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성공적인 정책 경험들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등 지식 공유를 위해 활발하게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국제통화팀)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권혁률 (bamryul@korea.kr)

